



제주의 장기체재형관광, 그 현황과 과제[※]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서 론

2000년말 기준으로 세계 관광인구는 약 6억명으로 전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고, 국가와 지역의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일찍이 관광을 국가전략산업 내지는 대체산업으로 인식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였고, 그 경쟁 또한 치열하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의 관광전략은 궁극적으로는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수입의 창출이라는 목표하에 시대적 흐름과 관광객의 요구 및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그러한 전략적 변화의 하나가 장기체재형관광의 육성과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장기휴가가 늘어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현상과 개인이나 단체여행 보다는 가족여행의 증가, 단순주유형관광 보다는 체험형·체류형관광을 선호하는 관광행태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기체재형관광은 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추구하는 관광전략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 인간의 관광은 원래가 장기체재형관광이었던지도 모른다. 중세의 순례관광은 종교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특정집단만의 권리이기는 했지만 짧게는 몇개월씩, 길게는 몇년씩 걸리는 관광이었고, 과거 일본의 탕치(湯治)를 중심으로 한 온천요양 이른바 '탕치여행'도 며칠씩 체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명산, 명소를 유람하는 관광행태가 주된 관광이었다. 어찌 보면 1박2일, 혹은 2박3일 정도의 기간에 틀에 박힌 코스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치는 오늘날의 관광은 현대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관광의 대

※ 본 글은 2002년 10월 13~16일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6회 ITOP(섬관광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기초강연 원고임을 밝힙니다.



중화라는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가리워진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21세기의 관광객들은 더 이상 틀에 박힌 코스를 도는 다람쥐이기를 원치 않는다.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원하고, 과거에는 느껴보지 못한 새롭고도 구체적인 체험을 요구한다. 여기에 일과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휴양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욕구변화가 덧붙여짐에 따라 장기체재형관광이 주된 관심사가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장기체재형관광에 있어서의 제주의 현실과 그 문제점을 논의해 보고, 향후 장기체재형관광지로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 황

1985년도에 최초로 관광객 100만을 돌파한 후 1991년에 300만, 다시 5년 뒤인 1996년에는 최초로 400만을 돌파하는 등 제주관광은 그 양적인 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로, 그것은 외국인관광객의 점유율이 낮다는 부분과 관광행태적 측면에서 제주관광이 경유형 내지는 단기체재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외국인관광객 유치성과를 보면 1991년도에는 전체 내도관광객의 8.6%인 27만여명이었고, 1996년도에는 5%인 21만여명이었으며, 2000년도에는 29만여명으로 전체 내도관광객 411만여명의 7% 정도 수준이다. 이러한 유치성과는 그 비율면에서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1991년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2만여명이 증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 해남성의 경우도 2000년도 전체 관광객의 5%만이 외국인관광객이었고, 오키나와의 경우도 외국인관광객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현안이기에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전략 등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표1〉 관광객 유치실적

(단위 : 천명)

구 분	계	내국인	점유율	외국인	점유율
1991	3,205	2,929	91.4%	276	8.6%
1992	3,422	3,179	92.9%	243	7.1%
1993	3,464	3,187	92.0%	277	8.0%
1994	3,693	3,470	93.9%	223	6.1%
1995	3,997	3,755	93.9%	242	6.1%
1996	4,144	3,933	95.0%	209	5.0%
1997	4,363	4,179	95.7%	184	4.3%
1998	3,291	3,067	93.1%	224	6.9%
1999	3,667	3,420	93.3%	247	6.7%
2000	4,110	3,822	92.9%	289	7.1%

한편,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제주관광의 체재일 수는 2박3일과 3박4일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은 단기체재형관광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2〉 내국인 관광객의 체재일수

구 분	2000년 (700명)	2001년 (378명)	2002년	
			6월(396명)	8월(340명)
당일(무박)	1.3%	0.7%	0.3%	0.1%
1박 2일	12.4%	3.4%	4.8%	5.1%
2박 3일	54.5%	43.4%	54%	43.1%
3박 4일	20.9%	30%	33.1%	51.7%
4박 5일 이상	9.5%	22%	7.8%	0%

주 1) 2000, 2001년은 제주도관광협회의 조사결과.

2) 2002년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조사결과.

하지만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2박 3일 체재형이 점차 줄어들고, 3박 4일 체재형이 2000년 20.9%에서 2001년 30%, 2002년 33.1%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가 지난 7월 한 달동안 시내 244군데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제주시 위주의 체재패턴이 점차 변해가고 있음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7월 한 달동안 서귀포시에서 체제한 관광객 수는 전체 관광객의 30.3%를 차지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관광객의 체재 역시 8.9%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제주시 위주의 체재패턴이 단기체재형관광을 보이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향후 전략 여하에 따라 장기체재형관광지로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고무적인 일이다.

참고로 오키나와의 경우도 관광체재일 수가 2박 3일과 3박 4일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단기체재형으로 1999년에는 평균 체재일 수가 3.74일로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낮은 체재일 수를 기록하였다.

발리의 경우에는 발리 관광청이 2000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내국인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5.9일,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는 11일로 섬관광정책포럼(ITOP) 회원지역 가운데는 가장 장기체재형관광지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

아직까지 제주관광이 장기체재형관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다음의 요인들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장기체재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풍토와 제도이다. 다시 말해 일(노동)을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풍토는 장기휴가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임신,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1주일 혹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장기체재를 유도하기 위한 체험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미흡하다. 장기체재형관광지가 보여 주는 관광행태는 휴양, 요양, 농·어촌체험, 야외활동 등 체험형 관광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유명 관광지를 순회하는 형태의 관광상품이 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셋째, 숙박이 도시인 제주시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지역에서 1주일 이상 장기체재를 유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빌딩숲, 화려한 네온사인, 꼬리를 문 자동차 행렬과 같은 도시의 이미지는 어느 곳에서나 다르지 않은 것들로 관광객들은 그런 도시에 1주일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시에서 1주일 이상 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카지노가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넷째, 상대적으로 체재기간이 긴 외국인관광객의 점유율이 낮다. 따라서 내국인관광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전체적인 평균 체재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제주가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체재기간을 연장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과 과제

오늘 현재 제주는 단기체재형관광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체재형 관광지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주에서의 체재기간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일부 직장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조만간 완전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1주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통한 장기체재형관광이 완전 정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주5일 근무제의 정착은 한국의 휴가문화를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은 특히 관광분야에 많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문관광단지 주변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과 같은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면 제주는 휴양형 관광지로서 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장기체재형관광에 적합한 숙박시설인 펜션과 민박 같은 시설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제주의 관광자원은 장기체재를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적 요소, 오름(기생화산)과 같은 산악형 관광자원, 농·어촌이 공존하는 독특한 마을 구조,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에서 발생한 독특한 문화 등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장기체재형관광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

력들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도 시급한 과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체제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중·장기 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의 오사카시는 금년 6월에 체제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문화집객액션플랜'을 발표하였는데, 이 플랜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항구지역에의 예술촌 조성, 병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시 상담과 야간관광이 가능한 외국인 콜센터의 설립, 먹거리 투어루트의 개발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제주의 경우도 체제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중·장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갈 때 그 효과와 성공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둘째, 장기휴가와 휴가분산제의 도입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어필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장기휴가는 더 이상 근무태만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 벗어나 생활과 노동의 원기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되어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대안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7·8월에 집중되는 휴가제도는 관광비용의 상승,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체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휴가를 계절별·지역별로 분산시킴으로써 노동력 공백현상을 예방하고, 관광비용의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가족여행이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학생들의 여름방학의 일부를 가을로 분산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관광객을 특정지역에 1주일 이상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발을 묶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절대적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야외활동형, 문화체험형, 건강 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야외활동형으로는 제주의 해양환경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윈드서핑, 요트, 낚시와 같은 관광상품과 산악자원을 이용한 오름트레킹, 행글라이딩 등을 개발할 수 있고, 문화체험형으로는 감귤농장체험, 해녀체험, 굿체험 등을, 건강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해수탕, 삼림욕과 같은 휴양형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한방치료 프로그램, 제주의 청정 공기를 활용한 호흡기질환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요양·치료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효과적이다.

넷째, 시설은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장기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서비스시설이 필요하다. 예컨대 레스토랑, 쇼펍센터, 의료시설 등은 물론이고, 스포츠·위락용품의 임대 및 배달 등의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와의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보서비스, 특히 장기적으로는 관광지 지역에 있어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정보센터 등의 관리 서비스도 필요하다.

한편,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 세대, 국적을 초월하는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지역민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체험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사랑방의 운영, 지역주민 가정방문, 관광 가이드와 해설을 위한 주민의 자원봉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체재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한다. 설사 장기휴가와 같은 토대가 마련되어 장기체재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제주가 차별화된 매력과 혜택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수요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문관광단지과 같은 리조트 지역 내의 호텔들이 공동으로 구급차를 운영하거나 건강상담사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통해 간단한 건강진단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1주일 이상 장기체재관광객에 대해서는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각종 관광요금에 대해 제주도민에 준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호텔과 같은 관광사업체들도 자체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혁하여야 한다. 제주의 주된 외국인관광객인 일본인관광객에게는 단순히 ‘安(싸다)·短(짧다)·近(가깝다)’에 적합한 관광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휴향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중국인관광객에게는 경유형 관광지가 아닌 목적형 관광지로 나아가 휴향형 관광지로 인식시키는 홍보전략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결 론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장기체재형관광이 제주는 물론 오키나와에서도 단시일에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2월 관광진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6월에는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의 총 6개 전략 중의 하나로 휴가의 장기화·연속화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면서 일본형 장기가족여행의 보급 정착 등의 액션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장기체재형관광지로의 변화 모색은 관광수입의 증대 즉,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제주를 비롯한 모든 관광지가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일 것이다. 많은 곳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성공을 거두어 관광대국 또는 국제관광지로서 명성을 획득하기도 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관광객은 더 이상 틀에 박힌 코스를 도는 다람쥐이기를, 단순한 구경꾼이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선진사례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오키나와와 같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역과의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문헌

- 제주도(2002), 2002 관광업무계획
한국관광공사(2002), 일본정부의 주요 관광정책